

2008년 11월 19일 수 말씀

사람이 정신이 살아있으면 멋있어 보입니다. 사람은 정신 값이고 돼지는 고기 값입니다. 사람은 정신 못 차리면 바로 넘어집니다. 바로 쓰러집니다.

여름에는 머리를 바짝 깎았었는데 겨울이니까 머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내 얼굴이 원래 흰편 이었는데 요즘 운동하느라 햇빛 받아서 그을렸습니다. 여기서도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중국과 다릅니다. 중국과는 한 30년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나라이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사람 잘 대해주는 것은 일본 보다도 더 앞선 것 같습니다. 잘들하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캠퍼스 전도 할 때 골고루 잘 하고 미술 하는 사람들 중에 끝까지 미술로 갈 사람들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해봐서 압니다. 즐기치게 자기 분야의 연습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도 해 보십시오. 그것만 계속 갈 수 도 없습니다. 대학교 농대 나왔어도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종교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잘 판단해보고 잘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할 바를 몰라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나도 기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원래 세상에 있을 때 시골서 과일나무 가꾸고 쟁도 기르고 돼지도 기르고 해서 때가 되면 잡아먹으며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다른 길로, 신학의 길로 키우셨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기도에 관한 걸 가르쳐야 합니다. 평생 동안 기도를 하면서 가야 될 인생들이니까 기도에 대해서 꼭 가르쳐줘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악착같이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를 잘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양떼들을 저 벌판에 갖다 놓고 거기에 배고픈 이리, 늑대,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목자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불꽃같은 눈으로 살피듯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살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기도도 해주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해주십시오. 그리고 아픈 사람도 본인이 본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알게 됩니다.

남도 잘 가르쳐야 되지만 인생은 자기가 자기를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나는 나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나를 가르치는 시간을 20년 정도 별도로 시간을 내어서 가르친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내가 나를 괴롭혔습니다. 정신적인 것, 사상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를 살피야 됩니다. 자기를 못 살피면 안 됩니다. 나도 살피고 남도 살피고 해야 됩니다. 자기신앙을 자기가 먼저 잘 살피야 됩니다. 정신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잘 모릅니다. 정신이 오락가락 하다가 영이 먼저 정신이 먼저 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이 없으면 짐승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영이 없다면 짐승 우리에게 떨어질 것입니다.

목회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십시오. 좀 패기 있게 해보십시오. 몇 백 명씩, 몇 천 명씩 이것을 왜 못합니까? 나는 길거리에서 따르는 사람을 몇 백 명, 몇 천 명씩 끌아놓고 다녔습니다. 아무데나 가라고 하면서 천주교 가려면 가고 장로교 가려면 가고 옆의 교회로 가려면 가라고 하면서 끌아놓고 다녔습니다. 나는 그때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냥 노방전도하면서 다녔습니다. 교역자가 악착같이 노방전도하고 다니면 1년이면 몇 백 명 금방 됩니다. 교인들 수 십 명, 수 백 명 있어도 몇 명전도 못하지 않습니까? 확확 밀고 나가야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젊은 청년들 전도하기 너무 쉽지 않습니까?

중고등 학생은 한 명씩 전도해 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합니다. 100명 200명 하는 건 쉽습니다. 사람 감동시키면 됩니다. 그 만큼 실력 있습니다. 사람 보면 실력 있어 보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뭘 돕기 원하지 그러면 도움받기 원하는 사람이 오지 않겠습니까?

어린이가 주는 것은 요만큼 줍니다. 어른이 주면 더 많이 주고 회사 사장이 주면 더 큰 것 주고 하나님이 주면 수 천 배, 수 만 배 영원하게 주십니다.

외국 가서 선교하더라고 그 나라에게 계속 있지 말고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십시오, 한국에서 하는게 최고입니다. 나도 외국에서 하다가 왔지만 외국도 되긴 됩니다. 되는 곳은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약합니다. 외국에서 한 명하면 한국에서는 20명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전도해서 같이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천국 가서 자기 가족이 한 명도 없으면 영원히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사는데 다시 복귀가 없습니다. 내가 새벽에는 깨는 데로 2시나 3시부터 6시까지 기도하고 저녁7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순간 앞에 뭐가 보이더니 천사가 딱 떠났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한다 소리에 빨리 가야한다며 순간 떠났습니다.